

보도자료**2012년 1월 29일(일)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정보보호팀 이상훈 팀장(☎750-2750)
네트워크정보보호팀 김신겸 사무관(☎750-2755)**방통위, 2012년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에 200여억 집행****- 금년은 국내 개최 국가적 행사가 많아 사이버공격도 증가 예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은 지난해 일어난 침해사고와 국내외 보안업체의 금년도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12년 사이버위협을 전망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 200여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국가적 주요행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증가 ▲웹하드, SNS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의 증가 ▲국가 및 주요기업 정보탈취 목적의 APT 공격 지속 ▲모바일 악성 코드로 인한 보안위협 현실화 ▲이용자가 많은 국산 S/W 취약점 공격 증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위협 증가 ▲DNS 서버 대상 DDoS 공격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3월), 총선(4월), 여수 세계박람회(5~8월), 대통령선거(12월) 등 국가적 주요 행사들이 개최되는바 이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아 관련 웹사이트의 집중 모니터링, 유관기관 협력강화 등 성공적 행사개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와 더불어 모바일 악성코드가 증가함에 따라 악성코드가 유포될 수 있는 '모바일 앱 마켓'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기 보급중인 '스마트폰 보안 자가점검 앱(SS Checker)'의 기능도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안전한 모바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내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국산 S/W의 신규 취약점에 대한 탐지·분석을 강화하고, 국내 주요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제도 활성화, 웹하드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여부 탐지 시스템 개발, 인기 검색어를 통해 유포되는 악성코드 유포지 자동수집 기술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되는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PC 이용자들에게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와 프로그램의 보안패치를 주기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백신의 경우 자동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 기능을 이용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웹사이트의 해킹 또는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불법스팸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에서나 국면 없이 ☎118 전화 또는 홈페이지(보호나라(www.boho.or.kr))를 통해 정보보호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2012년 사이버위협 전망 및 대응방안 1부.